



김수일 수일해저개발(주) 대표이사

이번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 수일  
해저개발(주) 김수일 대표이사를 만나본다.

김수일 대표이사는 어장정화정비 및 침  
체어망수거, 해양오염방제 등의 사업을 진  
행, 국내 최고의 해양환경종합회사로 수일  
해저개발(주)를 키워 온 해양환경개발분야  
리더이다.

근면성실, 솔선수범, 바다사랑을 제외하  
면 무엇이 남을지 모를 그에게 해양환경보  
전과 개발을 통한 수산강국 건설의 비전을  
듣는다.

- 편집자 주 -

#### ❖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요?

» 해양환경정화사업에 몸담은 지도 어느덧 8년째 접어들었  
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지만 쉽  
달라왔습니다. 요즘도 역시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번쯤 쉬어갈  
만도 한데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로 따지자면 일이 많아야 좋  
겠지만 결국엔 그 일을 해내는 건 사람의 힘을 빌어야 하는지라  
마냥 기계처럼 살아갈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일비의 순  
간이 뇌리를 스칠 때마다 항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  
이 앞섭니다.

지금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해양환경정화사업에 대비해 모  
든 작업 선박을 점검하고 새로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작업을 하는데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나 사업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  
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일해저개발(주)의 창업주로서 귀사가 국내 최고의 해양환경종합회사로 거듭나기까지 어떠한 경영철학으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 21세기, 사람들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 최고가 되어야 하고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보면 냉혹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가슴 한 구석에 자리 잡아 혼란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견해로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고라는 단어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금껏 진행해 온 일에 관하여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을 해야 올바른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 화합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배가 될 것입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지만 그것 또한 뜻이 맞지 않으면 찢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항상 직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서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 업계 최고의 위치에서도 연안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발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의 풍요로움이 많이 훼손되었고 해양 자체 정화 능력도 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어업종사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의 파괴는 육상기인 폐기물과 해양기인 폐기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육상쓰레기의 해상로의 유입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국민적으로도 해양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인식케 해야 합니다.

해양폐기물 투기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오염인의 의식전환 교육을 통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특히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관리 사업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며, 정부기관의 해양환경정화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투입이 필요합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 2004년 9월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수심 700m 해역의 침체어망인양사업을 자사 선박으로 시행하면서 지금껏 해왔던 해양환경정화사업 중 가장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300톤급의 선박이 작업하던 중 묵직한 뭔가에 걸려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감지하고 인양을 시도하였으나 와이어 로프만 팽팽해진 채 선박은 바다 한 가운데서 움푹달짝 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상 이러한 현상은 폐기물이 인양틀에 걸려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인양틀만 저질의 무언가에 걸렸다면 선박의 자중과 힘에 의해 이내 파손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폐기물임을 확신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인양하려고 시도하였고, 한 척의 선박에 비치된 장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200톤급 작업 선박을 투입하여 2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2척이 합류한 상황임에도 대수심에 자리한 폐기물은 녹

녹치 않았습니다. 마치 보란 듯이 “날 끌고 가보시오”하고 으름장을 부리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때는 9월이라 근시 일 내 태풍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선박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있던 사업관계자들은 도저히 안되겠다며 와이어 로프를 절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단하는 것은 절대로 안되며, 이는 곧 사업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끝끝내 인양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업 선박 2척을 이용하여 최대한 수심이 얇은 곳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최대한 저질이 고른 수로를 따라 수심이 얇은 통일전망대 부근까지 끌고 와서 인양하는데 까지 7일 주야의 작업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끌어올린 폐기물의 곳곳에는 이전에도 인양하려고 시도했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그 당시 한 번에 끌어올린 폐기물의 양은 무려 120여 톤으로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겨림이 되어준 여러 사업관계자님들과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슴 한 구석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 향후 수일해저개발(주)의 사업 계획은?

» 바다의 무한한 자원은 인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무한한 자원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바다 관련 국가산하기관과 협력하여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기존의 해양환경정화사업과 더불어 좌초·침몰 선박에 대한 유류오염방제 및 유류이적사업, 심해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 지원에 대한 선박건조, 해역환경보전·정비사업을 현재 시행 및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로지 바다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해양환경종합회사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 수산계 관계자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의 중심을 육지에서 바다로 바꾸고 제2의 수산업 부흥을 이루기 위해 수산계 관계자는 해양환경보전 및 개발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여야 하고,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수산업의 주체인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어업인 스스로가 주요 어종의 불법남획을 삼가고 어업생산 활동 중 발생된 폐어망·어구를 바다에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하여 해양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어업 생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으로 주요 국가사업을 수행해 왔고, 그 위상도 높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국민과 어촌에 폭 넓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펼쳤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앞으로도 해양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다시금 수산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민·관 협조를 통한 해양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